

봉축법어(요약)

오늘은 모든 생명이 부처님으로 탄생되는 날

한마음 밝게 가지면 정토의 길



법전 조계종 종정

모든 생명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법신을 갖추고 있고 만물은 일심(一心)의 근원에서 벗어 나지 않습니다.

마음은 모든 진리의 원천입니다. 마음에서 만유가 비롯되어 우주법계를 이루었고 범부는 마음을 깨달아 각지(覺地)에 올라 성인이 되었으니 마음은 모든 성자의 근본이며 만 가지 악행을 일으키는 근원입니다.

세간을 뛰어넘는 문도 마음에서 열리고 해탈로 나아가는 길도 마음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마음으로 이어져 있어 생명은 제각기 아름다운 마음을 빚어내고 법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영원불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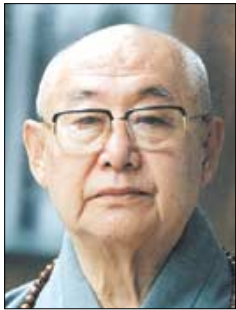
자성은 밝고 신령스러워 미혹도 깨달음도 없으며 마음은 본래 이루어져 있어 생멸이 없으며 우주의 본원이기 때문에 부처와 중생은 차별이 없고 진속(眞俗)은 평등합니다.

부처님은 생멸이 있는 곳에서 법신(法身)을 이루어 다시 만물 속에 그 모습을 나누고 있으니 곳곳에 부처님이 계시고 사방법계가 보리의 도량입니다. 마음 밖에 진리가 없고 부처가 따로 없습니다.

신하대지(山河大地)와 일월성신(日月星辰)이 중생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으니 삼천대천 세계가 우리들의 본래면목이며 법신체(法身體)입니다.

한 생각 어둡게 가지면 전도(顛倒)는 그치지 않을 것이고 한 마음 밝게 가지면 정토의 길이 열려 눈 먼 거북이는 종(鍾)을 쳐서 천안(千眼)을 이루고 앞산 빼꾸기는 겁외가(劫外歌)를 부를 것입니다.

참생명 되찾아 너와 나 하나되길



덕암 태고종 종정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일체중생이 이고득락(離苦得樂)하고 합안환희(咸安歡喜)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땅에 오신 것은 중생의 무명과 미혹을 없애고 명정(明淨)하고 무애자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중생의 미혹은 사물이 실재하고 구원하다고 믿는 전도된 생각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전도된 생각을 통해서 망집이 생기고 망집과 번뇌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사유권대 요즘사람들은 쉽고 편하게만 살려고 하면서도 행복을 바라고 타인의 불행은 못 본체 하고 자신의 이익에만 급급하는 그릇된 사조가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인행을 닦지 않고 과덕을 얻으려는 것은 삼치(三痴)인 나무에 열매가 달리기를 바라는 것과 같고, 자신의 인입과 이익을 위해서는 남의 고통과 처지를 간과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 삶의 태도는 일체만물이 상의상존적 연기의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는 까닭입니다.

인간의 고통을 여의고 인류의 속제인 평화를 구하기 위해서는 저마다 지나친 욕망과 집착을 조복하여 물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입니다. 누구나 청정무구한 본래의 참생명을 되찾고 나와 너, 자연과 우주가 하나 되는 법이입어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소중하고 가치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평화·상생의 세상 하루 속히 오길



법장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무명속에 헤매는 중생들에게 진리의 등불을 밝혀주시고 희망과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인류는 지금 크나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확산되어가는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앞이 보이지 않는 남북간의 평화공존 문제.

밝고 맑은 세상되게 등불을



홍파 관음종 종정대행

부처님은 톨비니 꽃동산 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부처님은 온갖 번뇌와 고통을 몸소 실천하시며 도를 이루시어 한평생을 중생 제도에 몸바쳐 오셨습니다.

생노병사의 인간적 고뇌와 고통을 벗어나는 길과 생명의 주인공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은 업력으로 더럽혀지고 물들어 있습니다. 본래의 한생명의 마음을 찾으라 하신 크신 뜻을 알아야 맑고 청정한 법신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린 본래마음을 회복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믿음이고 정진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것은 사바에 물든 온갖 번뇌와 업장을 가법계 하고 마음의 어두운 구석을 환하게 밝히고 나를 비롯해 주변과 세상을 밝고 맑은 세상되게 등불을 밝히는 서원의 날입니다.

지혜의 등불, 자비의 등불, 생명의 등불을 밝혀 온 세상 우리도 부처님 같이 살아갑시다.

불법퍼는데 일심으로 노력하라



동광 총화종 종정

세존출세(世尊出世) 대광명(大光明) 비어일출(比如日出) 대천계(大天界) 세존이 이 세상에 오시니 천지가 다 밝아 마치 해가 뜨는 것과 같고 온 세계를 비추네.

구제중생(救濟衆生) 만인락(萬人樂) 불법홍포(佛法弘布) 일념력(一念力)

중생을 다 구제하면 만사람이 즐거우니 불법을 퍼는데 일심으로 노력할 지어다.

환경오염, 집단간의 이기심, 세대간의 괴리 등 이러한 오늘의 현상들은 우리를 압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체중생 삼라만상이 하나의 그물코처럼 얽혀 있다는 부처님 말씀처럼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 존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남의 잘못이 나의 잘못임을 알고 우리와 더불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내 몸같이 여기면서 상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성스런 부처님 오신날 우리 모두는 미혹의 어두운 무명을 견어내고 오늘 밝힌 연등 불빛처럼 따뜻하고 밝은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가족은 화목하고 사회는 안정되며, 민족의 통일과 세계평화가 이루어지길 기원 드립니다.

수행의 삶 다짐하는 날

혜안 보문종 종정



오늘은 부처님께서 인류 정진 문명사의 대전환의 개벽의 문을 여신 날입니다. 과거 연등불로부터의 수기를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울려 퍼졌던 탄생가는 깨달음과 자비행의 두 가지 이념적 축으로 부처님의 생애를 일관하겠다는 약속의 메시지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부처님의 자녀'라는 메시지를 알려주기 위해, 즉 여래의 씨앗으로서의 불자의 참 모습을 열어 보여주고, 깨달아 증득시켜 주고자 하는 일대사안(一大事案)으로 몸을 나누셨던 것입니다.

불자란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태어나고, 가르침의 교화로부터 태어나 불법의 묘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 자녀에게 어른으로 장성하는 기나긴 성숙의 시간이 필요하듯, 우리 불자들은 '나'라는 에고(Ego)의 중생지견에 휩쓸리지 않도록 늘 정념으로 지켜보는 회광반조의 기나긴 수행의 삶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날로 이 날을 맞이합니다.

은혜깊은 마음·보리심 갖자

록정 총지종 종령



"무릇 은혜를 아는 자는 마땅히 보리심을 일으키고, 은혜를 갚는 자는 마땅히 일체중생을 가르쳐서 보리심을 일으키게 합니다."

보은의 마음을 가진 자는 응당 은혜 깊은 행동을 실천하는 법입니다.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제일의 일이 한 가지 있으니, 우리 불자들이 쉬임 없이 실천 수행하겠다는 마음을 크게 일으키는 것입니다.

실천대로 행하는 자는 능히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 될 것입니다. 불제자 여러분의 가정에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연기적 공존의 지혜 배워야 할때

도용 천태종 종정



생명은 존엄하며 사람이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사라지고 '정보'가 존재를 압도하는 인간 존엄의 상실은 이 시대의 새로운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맹목적인 생존 의지와 개인의 자유라는 허울을 둘러싼 무한대의 욕망들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충돌하는 문명의 타류가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기적 생존의 욕구에서 연기적 공존의 지혜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하나 속에 전체가 있으며 전체는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위대한 가르침을 우리 모두 마음으로 나누어 가질 때, 부처님의 거룩한 탄생은 지금 우리 앞에 있게 됩니다.

꽃은 산 앞에서 웃으며 천기를 누설하고 새는 숲 밖에서 지저귀며 진리를 노래하네. 날날이 다 스스로 무궁한 뜻이 있으니, 알고 나면 그 근원을 만나지 못할 곳이 없으리라. 화소산전설천기(花笑山前洩天機) 조가림외화무생(鳥歌林外話無生) 두두자유무궁의(頭頭自有無窮意) 득래무처불봉원(得來無處不逢原)

자성불 밝혀 맑은 세상 이름이라

혜일 진각종 종인



법신불의 광명은 온 누리에 변할 없건만 탐진치에 물든 마음 광명을 덮는다고 녹아원에 석가모니 오신 뜻은 자성불을 밝혀 맑은 세상 이름이라.

오늘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자비광명과 지혜광명의 화신으로 세상에 나투신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자성불을 밝혀 부처님이 오신 참 뜻을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전쟁과 기아, 질병과 갈등의 세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는 우리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던져버리고 우리 모두 대원력과 자비로움과 지혜로움을 발휘합시다. 본래의 자리, 자성 청정한 본심으로 돌아가 안락과 평화가 깃든 세계를 맞이합시다.

우리 모두 내 안의 부처를 자각하고 너 안의 부처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성을 가진 고귀한 존재입니다.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는 슬기로운 자비심을 가집시다.

꽃이 내리는 부처님 오신날! 지난날의 탐진치를 눈물로 참회하고 내 안의 부처를 대오각성하여 새롭게 부처님 오심을 온 인류와 함께 맞이합시다.

지혜와 자비광명은 누리에 드러나니 나뭇잎도 꽃잎도 모두가 광명입니다.

법어전문은 buddhnews.com에서 읽을 수 있으며 나머지 종단지도 자 번에는 421호에 실습니다.

Advertisement for '佛心同體' (Buddha Heart Same Body) health beds. Features two models: '헬스700' (w/4,800,000 - w/3,840,000) and '헬스600' (w/2,700,000 - w/2,160,000). Text: 『佛心同體』 헬스라이프 침대는 의료기기입니다. 스님과 불자님의 편안한 잠자리, 통증, 근육통, 혈액순환개선까지 건강은 헬스라이프 의료기기 침대가 책임집니다. 본 제품은 들침대, 매트가 아닙니다. Includes certificates, contact info (02-581-6011), and a list of agents.

